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연착륙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
- Bloomberg: 연준 정책의 역설: 너무 느린 성장이 인플레이와의 싸움을 위협
- CNN Business: 미 인플레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 WSJ: 대학 융자금 대출 상황, 소비자들 주머니 위협

#### [미국 금융]

- WSJ: 값싼 항공료로 인해 항공사 주식에 타격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내년도 주식 시장 어렵다”

#### [부동산]

- WSJ: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시장, 회복 조짐

#### [물류]

- WSJ: ‘물류창고 로봇들과 더 강력한 인터넷 연결망 필요’

#### [에너지]

- Bloomberg: ‘OPEC+ 외부의 공급 때문에 오일 랠리 약화된다’
- CNN Business: 높은 휘발유 가격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MBA 졸업생들, 기업 인수를 통한 기업가 정신에 관심 커
- Bloomberg: 인텔, 유리를 AI 산업에 중요 자원으로 검토
- Bloomberg: 아마존, 가젯 비즈니스와 알렉사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Why a Soft Landing Could Prove Elusive

##### 미 연착륙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

- 1990년, 2001년, 2007년 경기 침체 직전에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낙관했었다. 침체 없는 인플레이 억제를 낙관했었다.
- 비슷하게도 올 여름 경제학자들과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 둔화와 노동시장 둔화 때문에 이같은 어려운 목표가 이루어질 수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의 고문이기도 했던 Northern Trust Asset Management의 Antulio Bomfim은 “운이 많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연준 관리들은 연착륙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주에 22년만에 최고치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 현재 연준이 직면한 위험은 4가지다.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게 유지하거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거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금융 위기 가능성이 있다.

## WSJ 기사

## Bloomberg: Fed's Policy Paradox: Too-Slow Growth Threatens Inflation Fight

### 연준 정책의 역설: 너무 느린 성장이 인플레이와의 싸움을 위협

- 요지: 너무 높은 금리가 공급을 위협할 수 있으며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과거의 이론은 인플레이 관리 위해 수요 방지를 강조했다.
- 금리 5% 포인트 이상에도 불구하고 미 수요 둔화가 단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준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정책결정자들과 연준 감시자들은 새로운 논리에 주목하고 있는데, 즉, 중앙은행은 그들의 조치차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사점은 너무 높은 금리가 이제 시작하는 공급 증가의 혜택을 억제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와의 싸움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얼마전 잭슨 홀에서 발표된 논문도 주장하기를, 금리 급등은 금융 여건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혁신을 막아 경제의 공급 측면은 억제 한다는 것이다.

##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US inflation is expected to keep slowing. Here's why 미 인플레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 최근 미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각종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 둔화세를 보였다. 이러한 테이터를 근거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가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제품은, 특히 중고차 가격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나 신차 가격도 둔화되고 있으면 연말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높은 금리로 인해 자동차 관련해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신용 가능성이나 가용성(Credit availability)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 물론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현재 발생하는 가격 감소 현상이 바뀔 수도 있다.

## CNN Business 기사

**WSJ: Student-Loan Restart Threatens to Pull \$100 Billion Out of Consumers' Pockets****대학 융자금 상황, 소비자들 주머니 위협**

-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재개되면서, 미국인들은 천억 불의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생활비를 줄여 소매업자가 매출 감소를 걱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 미연방 교육부는 지난 2020년 3월에 유예했던 대출 상황이 재개되면서 오는 10월이 되면서 수천만명에 달하는 학생 융자 대출자들은 평균 200불에서 300불 사이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 그러나, 대출 상황의 재개가 전반적인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Target, Walmart 그리고 다른 소매업자들은 이런 상황에 걱정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한 해 18조가 넘는 미국의 소비 규모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한다.

WSJ 기사

**[미국 금융]****WSJ: Cheaper Airfares Are Squeezing Airline Stocks****값싼 항공료로 인해 항공사 주식에 타격**

- 요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여행 급증이 쇠퇴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 미 소비자들의 항공 여행 지출이 줄면서 항공사 주식이 타격을 받고 있다.
-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늘리면서 미 국내선에 주력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 국내선에 가중치를 둔 관련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의 업계 전반의 항공 요금은 1년전보다 13.3%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했다.
- 이러한 수요 약화는 항공사들이 연료비와 인력 비용 인상에 직면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 미 글로벌 제트 상장지수 펀드는 팬데믹 이후 올해 5.4% 상승했으나 7월 고점에서 19% 하락했다.

WSJ 기사

## Bloomberg: Morgan Stanley's Wilson Says Clients See Tough 2024 for Stocks

### 모건 스탠리, “내년도 주식 시장 어렵다”

- 요지: 투자 전략가들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고객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고 반면에 다른 약세 전망가들은 랠리 이후에 2023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Michael Wilson에 따르면 미 경제 성장 회복력에 힘입어 올해 주식이 크게 랠리를 보였는데, 현재 투자자들은 2024년에 주식 시장에 대해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 있다는 것.
- S&P 500의 16%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주식에 대해 약세 입장을 견지해온 그는, 고객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견들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비껴나갔는지, 아니면 2024년까지 늦춰질 것인지 하는 논쟁이다.
- 그는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 대부분은 부정적인 진영에 속하며 올해보다 내년에 주식 관련해 더 도전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부동산]

## WSJ: San Francisco Office Market Shows Signs of Life

###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시장, 회복 조짐

- 2020년 이후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 지난 몇 년간 범죄 및 기타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 중심 기업들은 원격 근무를 시행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시장에 타격을 주었다. 당시 사무용 건물의 가치는 폭락했고, 공실률은 신고점을 달성했다.
- 그러나 최근 몇 달간, 투자자들은 사무용 건물들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2019년 이후로 최대건수이다.
- 이러한 배경에는 몇몇 건물주들이 4년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가격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 그동안 부동산 매도자들에게 큰 타격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과 임대인들은 말했다.

WSJ 기사

### [물류]

## WSJ: Where's the Signal? Warehouse Robots Are Searching for Stronger Internet Connections

### ‘물류창고 로봇들과 더 강력한 인터넷 연결망 필요’

- 첨단 로봇들과 드론 그리고 여러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류센터가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을 원하고 있다.
- 많은 물류 기업들은 더욱 정교해진 기계들을 이용해 작업 능력을 향상해 왔는데, 이들 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인터넷 연결망이 새로운 고성능 자동화 기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전력을 끌어올 수 있거나 강한 인터넷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데, 도심에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 도시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방 물류센터의 경우 기반 시설과의 거리상 한계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

WSJ 기사

### [에너지]

## Bloomberg: Citi Says Oil's Rally Should Fizzle on Supply From Outside OPEC+

### ‘OPEC+ 외부의 공급 때문에 오일 랠리 약화된다’

- 요지: 배럴당 1백불을 상회할 수 있지만 단기간만 가능.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등의 공급이 오일에 부담줄 예정.
- 시티그룹에 따르면 OPEC+ 리더들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을 제외한 국가들은 공급 증가로 오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ED Morse 등 분석가들에 따르면 기술적인 트레이더들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단기간에는 배럴당(브렌트유) 1백불을 상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공급 때문에 90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이는 또한 휘발유와 디젤 연료 등 주요 연료의 가격을 낮추게 된다.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US gas prices are unusually high. Here's why you shouldn't worry

### 높은 휘발유 가격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 휘발유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 아래를 맴돌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공격적인 원유 공급 통제와 리비아에서 일어났던 홍수가 원유의 가격 상승에 원인으로 보인다.
- 유가의 상승은 월가에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이는 물가를 올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그러나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David Kelly는 유가 상승이 다른 경제적인 이슈와 더불어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1~2년 안에는 끝날 것이라 말한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유가는 높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국이 전략 석유 비축량을 줄였는데, 이것이 원유의 수요와 공급 균형 조정에 필요한 재고량을 감소시켜 유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한다.
-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해 러시아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을 초과중이며 내년에는 이런 생산량 증가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과 비OPEC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이고, 수요의 측면에선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CNN 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MBAs Are Spurning McKinsey to Buy Small Companies** MBA 졸업생들, 기업 인수를 통한 기업가 정신에 관심 커

- 올해 경험한 것 처럼 MBA의 취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MBA 학생들은 작은 기업 인수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가 정신(ETA: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준비시키는 클래스들이 일부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MBA를 채용하는 컨설팅,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채용이 줄어들었으며 채용되는 이들은 일반 학위 소지자가 아닌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인기 있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Intel Sees Glass as a Vital Material in the Race to Power AI** 인텔, 유리를 AI 산업에 중요 자원으로 검토

- 인텔은 전 세계 컴퓨터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기 쉽도록 예상치 못했던 소재인 유리에 투자하고 있다.
-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컴퓨터의 다른 부품과 통신하는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판을 칩과 연결 부품(Connecting components) 사이에 고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새로운 접근법은 AI 분야에서 인텔이 가진 혁신 능력을 보여주고 잠재적 고객을 만들어 낼 기회로 보인다. 인텔은 R&D 지출을 경쟁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금액인 약 180억 달러 늘렸다.

- 지난 20년간 기존의 기판은 유리섬유와 에폭시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 소재는 비교적 저렴했기에 업계의 표준이었다.
- 그러나, 기판에 구멍수를 늘리게 되면서 기판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부 영역에서 접촉 불량에 생기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 이 기판은 전력과 데이터가 지나가는 경로를 제한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졌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Amazon Opens a New Chapter for Its Gadget Business, and for Alexa**

### **아마존, 가젯 비즈니스와 알렉사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다**

- 9월 20일에 아마존이 최신 기기를 선보이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아마존은 2007년부터 Kindle 전자책 리더기를 판매해 왔으며, 10년 후 아마존의 부사장 Dave Limp가 모든 제품에 Alexa를 탑재하겠다는 아마존의 비전을 선언했다.
- 아마존은 새로운 유형의 기기에 알렉사를 탑재하고, 냉장고, 집 보안 시스템 심지어 전자레인지와도 알렉사가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그러나, 지난달 그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퇴직하리라는 것을 발표했으며, 아마존은 아직 다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마존의 제품군은 앞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워싱턴 DC 인근의 새로운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주 행사에서, 분석가와 Amazon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아마존의 주력 제품군을 소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Alexa의 기능을 어떻게 향상하는지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 연준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금주 G20 절반 금리 결정**

**유가 등 물가 불안 지속...연준, 이번엔 동결·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일본은 동결 전망...영국·스웨덴은 올리고 브라질은 인하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오는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권도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3. 9. 18. 오후 2:18

Constant Contact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4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4.5%로 0.25%포인트 올린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